

변화하는 유통 현장

레스토랑에 펼쳐진 청년농부 농산물… 건강·상생 ‘한입’

NS홈쇼핑 뉴파머스 레스토랑
청년농부 농산물로 요리 제작
뉴파머스 플레이트 등 선보
“좋은 농산물 유통 확대 필요”

“귀농의 첫 고민은 재배가 아닌 ‘어떻게 팔지?’였습니다. 좋은 농산물을 재배해도 이걸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습니다”

젊음의 에너지가 넘치는 청년 농부들의 정성과 고뇌, 열정이 작은 식탁에 고스란히 펼쳐졌다. 익숙지 않은 길. 처음부터 모든 걸 스스로 해내야 했던 젊은 청년들의 농촌 일대기가 버섯, 양대파, 유제품, 로메인 등 다양한 농작물의 모습으로, 먹기 좋은 요리가 돼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12일 NS홈쇼핑은 서울 서대문구에 ‘뉴파머스 팝업 레스토랑’을 열고 청년 농부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제작한 요리를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청년 농부의 판로 개척을 위해 마련됐다.

허형환 NS홈쇼핑 전략본부장은 현장에서 “(청년 농부들의 경우) 유통 판



NS홈쇼핑 ‘뉴파머스 팝업 레스토랑’ 행사에 참여한 청년 농부들.

로를 못 찾는 경우가 있다. 단순 식재료만을 가지고는 뭔가를 할 수 없는 만큼, (청년 농부들의 상품들이) NS홈쇼핑을 통해 유통 판매도 되고, 또 그걸 뛰어넘어서 유통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자리에는 버섯, 로메인, 저지우유(유제품), 양대파 등을 직접 재배하는 청년 농부들이 참여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다채로웠다. 가장 먼저 충남 예산에서 온 김도혜(29) 청년 농부는 고등학교 때 양대

파 작물을 직접 개발해 특허를 냈다. 농수산대학교 채소학과를 졸업한 그는 “양대파는 양파랑 대파를 교잡한 게 아니라 순수 양파를 심어서 대파 모양처럼 기르는 채소”라며 “순수 양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아삭아삭하고 단맛이 많다”며 재배 원물을 소개했다.

충남 청양에서 온 박세현(32) 청년 농부는 “창업한 지 6년차”라고 밝히며 “현장에 대한 경험이 없었는데, 멘토 한분을 만나 정착했다. 청양지역이 원래 포고버섯으로 유명한데, 버섯으로만 자리 잡기에는 차별화가 부족해 현



뉴파머스 팝업 레스토랑에 진열된 청년 농부들이 재배한 원물 이미지

/안재선 기자

재 목이버섯, 느타리 버섯 등으로 재배 작물을 확대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고 전했다.

큰 포부를 품은 청년 농부도 있었다. 충북 청주에서 온 정찬수(36) 청년 농부는 “썬키스트 같은 농민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꿈 있는 농부를 많이 불러 모아야 한다”고 청년 농부들의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탈리아 연수를 다녀온 글로벌 청년 농부도 있었다. 경기 평택에서 유제품을 재배하는 과진영(28)씨는 “평택에서 3대째 목장을 운영 중”이라며

“(국내 소비자들은) 생산자가 누군지 모르는 만큼, 목장이라는 공간 자체를 멀게 생각하는 것 같다. 직접 맛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이탈리아 가서 젤라또 만드는 법 등을 배우고 왔다”고 전했다.

다채로운 이야기만큼 음식 역시 다양했다. 행사 식탁에는 뉴파머스 플레이트, 로메인 보리김치와 한치 세비체, 훈연 그릴드 치킨과 맑은 수프, 토마토스튜와 제철 솔밭, 베소르베와 젤라또 등의 메뉴가 차려졌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주택 ‘패션문화 공간’ 변신… 안락·감성 가득 쇼핑

아디다스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
소파·램프 등 활용 집안 분위기 조성
‘Y-3 브랜드’ 등 출시 전 제품도 전시

일반 주택이 새로운 패션 문화 공간으로 대변신을 이뤘다. 현대적인 세련됨과 주택이 풍기는 아날로그적인 안락한 분위기가 한 공간에 어우러졌다. 단순 리테일 매장이 아닌, 패션과 예술이 모두 연결된 공간. 압구정 도산공원 인근에 오픈한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다.

지난 11일 아디다스는 공식 오픈 예정일인 오는 13일에 앞서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 사전 미디어 행사를 열고, 이 같은 공간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 전경

을 소개했다. 지난해 아디다스 코리아가 선보인 ‘아디다스 북촌 헤리티지 스토어’, 지난 4월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플래그십 성수’에 이은 3번째 플래그십 스토어다.

내부 매장은 1층과 2층으로 구분됐다. 1층에는 대형 디지털 스크린과 함께 아디다스가 개인 디자이너와 협업한 컬래버 상품을 선보이는 공간들이 조성됐다. 이외에도 아디다스 대표의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 내부

/안재선 기자

류 컬렉션과 이번 도산 매장에서만 한정 판매되는 그래픽 티셔츠들이 전시됐다. 그래픽 티셔츠 상품은 국내 아티스트인 노상호 작가가 함께 협력해 제작했다는 게 아디다스 측 설명이다.

곳곳에 주택의 감성을 담은 포토존도 마련됐다. 주택의 안락한 느낌을 풍기는 램프, 의자 등의 아티스트 감성을 담은 오브제들이 곳곳에 자리했다.

아디다스 코리아 관계자는 “(여기 오브제들은) 제품을 해체하고 다시 결합해서 재탄생시킨 것이 특징”이라며 “소파, 램프, 의류 등으로 구성을 해 집안에 있는 것처럼 조성했다. 고객이 좀 더 머물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설계가 됐다”고 밝혔다.

2층은 프리미엄 제품 라인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꾸며졌다. 가장 먼저, 국내 출시 전 제품을 미리 만나 볼 수 있는 Y-3 숏슬립 존이 눈에 띄었다. Y-3은 일본 디자이너 요지 야마모토가 만든 브랜드 명으로, 해당 공간에는 아디다스 제품을 Y-3 브랜드로 재해석한 상품들이 진열됐다.

/안재선 기자

하이트진로, 파리서 ‘진로’ 매력 뽐내

현지 팝업스토어 운영… 8000명 방문

하이트진로는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15일간 운영한 ‘진로 팝업스토어(JINRO Pop-Up Store)’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팝업스토어는 프랑스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진로(JINRO)의 브랜드 정체성과 매력을 전달하고, 제품 체험을 통해 브랜드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진로 정원’을 콘셉트로 운영된 이번 팝업스토어는 진로의 상징인 녹색병과, 프랑스 베르사유 정원에서 영감을



하이트진로 프랑스 파리 진로 팝업스토어(JINRO Pop-Up Store) 행사 현장 /하이트진로

받아 공간 연출에 조화를 더했다.

행사기간 약 8000여 명의 현지 소비자가 찾아 진로(JINRO) 브랜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푸드 헌터 사이드’ 게임 도전해보세요”

롯데칠성음료 할인쿠폰 등 경품 제공

롯데칠성음료가 온라인 직영몰 ‘칠성몰’에서 ‘푸드 헌터 사이드’ 게임을 7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다양한 음식과 어울리는 칠성사이드를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고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칠성몰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

푸드 헌터 게임은 칠성사이드 캐릭터가 장애물을 피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이다. 치킨, 피자, 햄버거 등 칠성사이드와 어울리는 음식을 획득해 점수를 누적하고 바위, 웅덩이 등 장애물에 3번

이상 부딪히면 게임이 종료된다.

칠성몰 회원은 누구나 칠성몰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계정마다 1일 5회 도전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친구에게 게임을 공유하거나 칠성사이드 광고를 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게임 기회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벤트가 마무리되고 최고 점수에 따라 1등 롯데 상품권 20만 원, 2~5등 칠성몰 10만 포인트, 6~10등은 치킨 모바일 상품권 3만 원권을 증정한다. 777점 이상을 달성할 경우 추첨을 통해 칠성몰 1만원 할인 쿠폰을 포함해 칠성사이드, 펍시콜라 등 다양한 경품을 즉시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롯데웰푸드
‘대통령·엄마의 실수’ 추억의 아이스크림 출시

롯데웰푸드는 추억의 아이스크림 ‘대통령’과 ‘과수원을 통째로 열려버린 엄마의 실수(엄마의 실수)’를 재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각각 ‘돌아온 대통령’, ‘돌아온 엄마의 실수’라는 이름으로 선보이며, 레트로 마케팅으로 다가오는 여름 빙과 성수기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에 다시 선보인 ‘돌아온 대통령’과 ‘돌아온 엄마의 실수’는 운영 당시의 배합을 충실하게 재현해 추억의 그 맛을 다시 만나볼 수 있도록 신경썼다.

/신원선 기자